

오디비우스로 배우는 라티움어*

— *Fabula docet*

김진식**

[초 록]

이 논문은 우선 기원전 1세기 이래 로마가 희랍의 문법학을 수용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라티움어 문법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문법의 중요성 등을 살펴본다. 여기서 요점은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문법책 *fabula docet*에서 사용하게 될 문법용어들과 개념들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 출간된 라티움어 문법책들을 살펴보고, 최근 서양에서 유행하는 문법책들의 흐름도 검토한다. 이어 새로 출간된 문법서 *fabula docet*의 구성과 내용 등을 소개한다. 라티움어 기초 문법에 어떤 방식과 순서로 접근할 것인가, 기초 문법에서 다룰 문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고전기 산문을 토대로 구성된 라티움어 문법을 전달하는데 오비디우스의 운문이 어려움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오비디우스의 신화이야기가 학습적 매력을 가졌음을 주장한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정암학당 연구원

주제어: 문법학, 라티움어 문법 교재, 오비디우스, 변신이야기, 로마문학
Latin Grammar, Latin Grammar Textbook, Ovid, *Metamorphoses*, Roman Literature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대학에서 서양고전학, 다시 말해 희랍문학과 로마문학, 희랍어와 고전 라틴어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가르쳐진지 어느덧 30년이 되었다. 서양고전학회가 생겨나고 서양고전학 협동과정은 서울대에 설치되면서 1989년에 서양고전학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많은 연구자가 배출되고 있고 대학원 학생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으며, 고전어, 특히 라틴어는 학부 교양과목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한편 시민 사회에도 고전어 학습 열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서양고전문헌학과 관련된 공구류의 기초문헌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희랍어 사전과 고전 라틴어 사전을 편찬해야 한다. 라틴어의 경우, 그간 몇몇 시도가 있었고 『한글 라틴어 사전』은 절박한 필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애초의 출발이 가톨릭이기 때문에 고전문학의 연구에 쓰이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중세 라틴어에서 벗어나, 키케로와 카이사르,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와 오비디우스의 황금기 로마문학을 중심으로 편찬된 사전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고전기 로마문학의 번역 작업이 괄목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고전기 라틴어 사전 편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으로 고전기 중심의 라틴어 문법서 출간도 시급한데,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고전기 라틴어의 문법적 체계와 개념을 다지는 것은 사전 편찬의 다른 한 축이기 때문이다. 최근 *Fabula docet*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라틴어 문법 교재는 고전문헌학의 기초문헌 출간이라는 커다란 목표와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희망을 보여준다.

2. 고전문학과 문법

고전어 문법 교육은 고전문학 교육과 하나인바, 고전문학의 이해는 언어와 문법의 이해를 전제한다. 상당한 시간 공들여 정확한 언어와 문법을 익히지 않으면 고전문학의 이해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남은 고전문학들이 정확한 문법을 토대로 아름답고 투명한 문장을 쓰려고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비단 교육의 단계만이 아니라 문헌비평에서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확고한 언어적 문법적 틀은 고전문헌학의 토대이고 저력이다. 우리에게 고전어 문법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이 아니다.¹⁾

기원후 95년경 출간된 *Institutio Oratoria*의 퀸틸리아누스는 쓰기와 읽기의 능력을 얻은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들을 ‘문법교사’(grammatici)라고 부르고, 문법교사의 일을 “정확히 말하기의 지식과 시인들의 해석”(recte loquendi scientia et poetarum enarratio)으로 정의했다.²⁾ 퀸틸리아누스가 문법을 보는 시각은 엄격함과 정확함이다. 그는 ‘정확히 말하기’와 ‘정확한 쓰기’가 선행된 이후, 그러니까 ‘바른 읽기’(emendata lectio)에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시인들의 해석에 진입하는 것으로 문법을 들로 나눈다. 문법 교육에서 바르고 정확한 문법 규준에 따른 학습과 교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문법적 판단이 생겨나면, 이후 이에 따라 고전문학의 해석이 시작된다. 엄격한(severe) 판단에 따라 “옛 문법교사들”은 — 우리의 생각에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감찰의 표식’(censoria virgula)을 달고 ‘정전’(正典, ordo)을 결정했다고 퀸틸리아누스는 덧붙인다.³⁾

1) 장지연(2009), 「문학 교육으로서의 고중세 라틴어 교육」, 한국수사학회 학술대회, pp. 23-31.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문법책을 만들면서 소위 Latinitas viva를 방법론적으로 추가했다. 소리 내서 바르게 읽기 훈련의 일환이며, 학습 동기 유발에서도 좋은 효과를 준다.

2) V. Law (2003), *The History of Linguistics in Europe*, Cambridge, p. 60.

3) Quintilianus (2001), *Institutio Oratoria* (ed. D. Russel), Harvard university press, I,

공화정 말기의 키케로보다 정확한 문법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한 사람도 없다. 키케로는 *De Oratore*에서 훌륭한 연설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발음, 운율, 격, 시제, 성, 수, 인칭, 일치 등의 정확한 단어, 발성, 구문을 강조한다.⁴⁾ 실제로 키케로의 연설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의 문법적 정확성과 엄격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키케로에게 “로마인들 가운데 가장 박식한” 테렌티우스 바로(기원전 116-27년)는 그의 문법서 *De lingua Latina*를 헌정했다. 그래서인지 퀸틸리아누스도 공화정 후기의 법정, 즉 광장을 “지배한”(regitare) 키케로를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바라봅시다. 이 사람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읍시다. 키케로를 좋아하게 된다면 학생이 큰 진전을 보았다는 뜻입니다.”⁵⁾ 퀸틸리아누스의 권고는 연설에 관한 것이겠지만, 고전어 문법 교육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고전어 문법 교육 방향은 키케로의 정교한 문장을 모방하는 것이고, 모방에는 키케로의 정확성과 엄격성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경직되어 보이는 고전어 문법은 두 번째 단계인 고전문학의 이해에 이르러 유연성과 융통성을 보인다. 퀸틸리아누스의 *Institutio Oratoria*는⁶⁾ 자음과 모음의 발음과 철자법, 음절, 품사, 명사 변화와 동사 변화, 동사의 시제, 태, 법, 인칭, 수를 정확히 가르칠 것을 문법교사들에게 권하고, 나아가 엄격한 규칙들에 문학작품들이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탁월함”(virtutes)을 성취한 예들과 그렇지 않은

4, 2-3. “in duas partis dividitur enarrationem praecedat emendata lectio et mixtum his omnibus iudicium est. quo quidem ita severe sunt usi veteres grammatici”.

4) Cicero (1902), *De Oratore* (ed. A. Wilkins), Oxford, III, 11, 40 이하와 III 13, 49 이하. M. von Albrecht (2003), *Cicero's Style*, Brill, p. 134. G. Devoto (1968), *Geschichte der Sprache Roms*, Heidelberg, p. 131.

5) Quintilianus (2001), X, 1, 112.

6) Quintilianus (2001), I, 4, 6-29.

예들(*vitia*)을, 그러니까 문법 오류와 비유법들의 명확한 차이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인다.⁷⁾ 이 또한 키케로의 모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펠라니푸스』에서 ‘누가 내 아이의 청춘을 도끼눈을 치뜨는가?’(*Quisnam florem liberum invidit meum?*)”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라티움어는 아닙니다만, 아키우스라서 훌륭합니다. 그는 ‘보다’(*videre*)라는 동사처럼 ‘청춘을 도끼눈을 치뜨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청춘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훌륭합니다. 언어관습은 우리에게 금지해도, 시인들은 과감하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⁸⁾ 훌륭한 라티움어는 아니지만, 훌륭합니다.

이처럼 문법 교육의 잇길이 따르는 원칙은 국가를 다스리는 원칙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엄격함이 유지되는 한에서 유연함과 관대함이 용인되어야 한다.”⁹⁾ 그런데 디오니시오스 트락스(기원전 170-90년)가 쓴 “건조하고 단순한”¹⁰⁾ 서양 최초의 문법서는 문법 교육 영역에서 문법의 엄격함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유연함과 관대함을 강조하는 듯 보인다. “문법은 시인들과 산문작가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는 말들에 대한 경험 지식이다.”¹¹⁾ 하지만 이때 그가 문법을 시인이나 작가로 인정받은 이들에게서 보이는 ‘대체적 경험적 규칙’이라고 한 것은, ‘시인의 권리’(*licentia*)가 우선시되는, 고전 문학의 이해 도구로서 문법이 문제되는

7) Quintilianus (2001), I, 5, 5. “단어오류와 문장오류의 추함을 멀리하라! 하지만 이 오류들은 때로 관례, 권위, 세월에 의해 그리고 훌륭함과 유사성에 의해 용인된다. 오류들과 비유법들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논의는 안재원(2008), 「개별단어 오류(Barbarismus)와 문장오류(Soloecismus)에 대하여」, 『서양고전학연구』 32, pp. 177-202를 보라.

8) 키케로(2014), 김남우 역, 『투스쿨룸 대화』, 아카넷, p. 3, p. 9, p. 20.

9) Cicero (1994), *De Officiis* (ed. M. Winterbottom), Oxford, I, 24, 88.

10) Varro (2019), *De lingua Latina*, ed. W. de Melo, Oxford, p. 29.

11) Dionysius Thrax (1883), *Techne Grammatike* (ed. G. Uhlig), Leipzig, 1. ‘grammatikhv estin empeiria twv para poihtai- te kai; suggrafeusin w- epi; to; polu; legomenwn.’

영역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디오니시오스 트락스가 엄격함과 정확함을 거론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가 퀴틸리아누스와 달리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3. 문법 용어들

오늘날 고전어 문법에서 사용되는 문법용어를 정리하고, 용어들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리말 문법 용어의 제정에 참고하기 위해 문법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법서는 보통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가) 음운론과 형태론, (나) 문장론¹²⁾, (다) 운율론을 다룬다.¹³⁾ (가) 음운론과 형태론은 자모의 형태와 발음에서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등의 변화를 다룬다. (나) 문장론은 (1) 단문(주술 일치), (2) 격 용법(주격, 속격, 여격, 대격, 탈격, 호격), 전치사 용법, (3) 동사 시제(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시제 일치, (4) 동사 법(직설법, 접속법, 명령법), (5) 동사 파생 명사(부정사, 분사, 목적분사), (6) 복문, 종속절(시간, 조건, 양보, 비교, 목적, 결과, 이유), 관계, 의문, 간접화법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다) 운율론은 글자 그대로 운문이 취한 운율을 다룬다.

문법서의 역사를 보면, 형태론과 음운론, 어원론과 어휘론을 중심으로 한 문법에서 문장론 중심의 문법서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대와 중세 라틴어 문법학은 품사론에 치중한 반면,¹⁴⁾ 문장론의 강화와 심화

12) ‘*syntax*’를 ‘구문론’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13) 예를 들어 Gildersleeve는 *etymology*, *syntax*, *prosody*로 그의 문법서를 크게 구분한다. Rubenbauer & Hoffmann은 *Lautehre*, *Formenlehre*, *Satzlehre* 등을 다루면서 부록에서 *Prosodie*를 다룬다. B. L. Gildersleeve & G. Lodge (1894), *Latin Grammar*, London. H. Rubenbauer & J. B. Hofmann (1995), *Lateinische Grammatik*, Bamberg/München.

는 19세기 말에 특히 독일에서 일어난 현상이다.¹⁵⁾

디오니시오스 트락스¹⁶⁾는 단어 강세, 자모, 음절 등을 다루며, 이어 품사(*lexi-*, *mero-* *logou, pars orationis*), 다시 말해 명사, 동사, 분사, 정관사, 대명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 등 8품사의 정의와 분류를 다룬다. 예를 들어 그에 따르면 동사는 격변화하지 않는 품사로 행위와 경험을 표현하며, 법, 태, 수, 시제, 인칭, 동사변화 등에 따라 나뉜다. 명사의 격을 주격, 속격, 여격, 대격, 호격의 순서로 열거한다. 또 법을 직설법, 명령법, 희구법, 접속법, 부정법으로 나누는데, 오늘날 부정법은 동사 파생 명사로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¹⁷⁾ 또 접속사는 등위, 역접, 조건, 이유, 목적, 의문, 결과, 설명 등의 접속사를 다룬다. 그는 주어와 술어의 일치 등 오늘날 우리가 문장론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속하는 것을 다루지 않았다.¹⁸⁾

테렌티우스 바로(기원전 116-27년)은 *De lingua Latina* (전체 25권)에서 어원론과 어휘론, 문장론(14-25권)을 다룬다. 바로는 8품사가 아닌 4품사만을 받아들인다.¹⁹⁾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시대의 베리우스 플라쿠스는 *De significatu verborum* (최소 전체 50권)라는 일종의 사전을 저술했고, 여기에 몇몇 중요한 문장론적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 기원후 1세기 이후의 로마 문법학자들은 대부분 퀸투스 램니우스 팔라이몬을

14) 장지연(2014), 「라틴어 문법학의 품사론 발전 연구(1) — 고대 라틴어 문법학 품사 체계의 확립 —」, 『지중해지역연구』 16권, pp. 47-64.

15) G. Landgraf (1903), *Historische Grammatik der Lateinischen Sprache*, Leipzig, p. 71 이하 문법서의 역사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6) 안재원(2003), 「디오니시오스 트락스의 *Ars Grammatica*」, 『언어학』 35호, pp. 131-151. 이 논문에서 필자는 “*syntax*” 내지 “통사론”이 품사론과 형태론의 구성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디오니시오스 트락스는 *syntax*를 다루지 않았는데, 필자의 주장이 받아들인다면 디오니시오스가 이를 다루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17) 성염(2003), p. 23; 한동일(2012), p. 189은 ‘부정법’을 든다.

18) L. Lersch (1840), *Sprachphilosophie der Alten*, Bonn, p. 70. “Namentlich ist das sehr bedeutsam, dass sich keine Abtheilung *peri; suntaxew-* vorfindet.”

19) Varro (2019), p. 29.

따르는데, 팔라이몬은 다시 앞서 디오니시오스를 영향을 받았다.²⁰⁾ 또 기원후 4세기에 아일리우스 도나투스의 문법서는 *Ars minor*와 *Ars maior*로 나뉘는데, 전자는 각 품사의 정의와 속성, 굴절 형태를 다룬다. *Ars maior*의 목차를 보면 3부로 구성되었고, 제1부는 음운 현상을, 제2부는 8품사(명사, 대명사, 동사, 부사, 분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제3부는 문법 오류와 결합, 표현과 비유법을 다룬다. 기원후 5세기말에 활동한 문법학자 프리스키아누스는 *Institutiones Grammaticae*를 썼는데, 앞선 문법학자들이 형태론 중심의 문법이었다면 그는 문장론도 다룬다.²¹⁾ 기원후 7~11세기에 걸쳐 도나투스와 프리스키아누스가 가장 존경받는 문법학자로 여겨졌다. 12세기 스콜라철학의 영향을 받은 프리스키아누스 주석이 출간되었고 이 주석과 프리스키아누스의 책이 13세기까지 문법을 지배했다.

이들 로마 문법학자들은 동사의 법을 직설법(*finitus; indicativus*)²²⁾, 명령법, 희구법, 접속법, 부정법으로 나누었다. 또 기본 시제를 현재(*instans; praesens*), 과거(*praetertium*), 미래로 구분했고, 과거를 다시 미완료(*imperfectum*), 현재완료(*perfectum*), 과거완료(*plusquamperfectum*)로 나누었다. 한편 바로는 미완료 시상과 완료 시상을 알았고, 각각에 현재, 과거, 미래를 두어 ‘*discebam, disco, discam*’과 ‘*didiceram, didici, didicero*’를 예로 제시했다. 한편 디오메데스(기원후 4세기 후반)는 시제일치와 부문장의 접속법, 동사의 격 지배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주어와 술어의 일치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20) 안재원(2003), p. 143.

21) 장지연(2009), pp. 26-28.

22) Landgraf (1903), p. 12. ‘*indicativus*’는 프리스키아누스의 용어이며, 다른 사람들은 ‘*promuntiativus*’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4. 문법책들

라틴어가 19세기 초엽부터 우리나라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했다고 하고, 외국어 가운데 가장 오랜 150년의 전통을 가진다고 하니,²³⁾ 이제 우리에게도 라틴어의 역사는 200년이 넘었다.

그간 라틴어 교재개발의 시도가 있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허창덕의 『라틴어 문장론』(지음, 초판 1962)과 『초급 라틴어』(지음, 초판 1963, 1976, 1993), 신익성²⁴⁾의 『라틴어 입문』(편저, 초판 1967, 1971, 1984, 1990)와 『라틴어』(지음, 초판 1972, 개정판 1986, 개정 증보판 1990), 고영민의 『알기 쉬운 라틴어 문법』(1975), 배제민의 『라틴어 문법』(1978), 신익성의 『라틴어: 알파벳에서 고전 읽기까지』(1994), 성염의 『고전 라틴어』(1994, 2014), 김광채의 『라틴어 강좌』(1994, 2003), 허창덕의 『중급 라틴어』(1994, 2009), 이화남의 『라틴어 문법』(지음, 초판 1995) 등이 그것이다. 이명호의 『대학 라틴어』(지음, 초판, 1999), 박기용의 『라틴어: 문법 강좌, 명저원강』(1999), 조대영의 『라틴어 길잡이』(편저, 초판 1999), 가톨릭 대학교 라틴어 연구소(소장 백민관)의 『라틴어 30일』(편찬, 초판 2000), 성염의 『라틴어 첫걸음』(지음, 초판 2003), 오평호의 『라틴어 교본』(지음, 초판 2002)과 『라틴어 문장연습 *Syntaxis Linguae Latinae Exercitia*』(지음, 초판 2004), 공성철의 『라틴어 강좌』(편역, 초판 2007), 전상범의 『라틴어 입문』(2008, 2015), 정병식의 『신학 라틴어』(2010), 오연수의 『최신 라틴어 교본』(지음, 초판 2011), 한동일의 『카르페 라틴어』(지음, 초판 2012), 조경호의 『기초 라틴어 문법』(2013)

23) 허창덕(1962), 『라틴어 문장론』, 머리말.

24) 박영배(2008), 「전상범·신성진 지음, 『라틴어 입문』」(『영어영문학』 54, pp. 599-604)에서 신익성의 라틴어 교본(1980)이 “언어학이나 영어학 특히, 고대/중세영어 문헌연구나 중세영어학을 전공하려는 이들을 위해 편찬된” 최초의 교본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평하고 있다. 박영배가 참고한 신익성의 1980년 라틴어 판본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이 그것이다. *Wheelock's Latin*을 번역한 『(휠록) 라틴어 문법』(이영은, 초판 1994)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8년 성염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라틴어의 새로운 교수법 두 가지를 소개했다. 고전작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소위 직접 학습 방법이다. 고전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쉽게 풀이하고 번안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교재”, 다시 말해 고전작가의 비중을 높인 교재는 문학과 문법을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런 교재로 성염은 *Lingua Latina per se illustrata* [Hans Henning Ørberg (1955)]를 꼽았다. 한편 소위 ‘직접 학습 방법’은 20세기 초에 고전어 학습 방법의 새로운 탐구의 결과인바, 사전 지식 없이 고전어를 배우는 “귀납적이고 직관적인 언어능력에 의거하여” 고전어를 배우는 교재다. 성염은 그 대표적 성과로 *Oxford Latin Course* [M. Balme & J. Morwood (1987)]을 꼽았다.²⁵⁾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문법책들은 성염이 소개한 새로운 방법이 적용되지 않은 전통적인 문법책에 가깝다. 성염도 직접 학습 방법을 고려하면서 고전문학의 비중을 높인 교재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일단 한 학기정도 짧은 기간 고전어를 배울 뿐이고 생활언어로 구사할 가능성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염의 『라틴어첫걸음』은 형태론과 문장론 등 문법적 설명은 대폭 줄이고 문법 연습을 늘였으나 전통적 문법서 형식을 취한다. 그동안 고전어를 배우는 시간은 3학기 이상으로 늘어났고, 배우려는 수요도 크게 늘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Oxford Latin Course I-III* (1987, 1996)은 서울대 서양고전협동과정이 개설하는 고전어 수업의 교재로 채택되었는바, 성염이 소개한 장점을 가진 학습 교재다. 하지만 저자들이 라틴어를 배우는 이유로 영어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처럼²⁶⁾ 영어가

25) 성염(1998), 「현대 라틴어 문법 이론과 교수법」, 『서양고전학연구』 12, pp. 141-161.

26) M. Balme & J. Morwood (1996), *Oxford Latin Course I*, Oxford, p. 5.

모어(母語)인 경우를 전제로 만들어진 교재라는 점, 또 문법과 어휘의 수준이 대학생용이라고 하기에 크게 모자란 점은 아쉬움이다.

학습용 교재가 아닌 참고용 문법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서로는 우선 Gildersleeve의 *Latin Grammar* (1895년 제3판)가 있다. 이 책의 참고 문헌 목록을 보면 참고문헌의 대부분이 19세기 말의 독일 문법서들이다. 독일어로 쓰인 대표적인 문법서로 우리가 라틴어 문법의 최종 심급으로 삼은 Kühner & Stegmann²⁷⁾은 문법 체계에 따른 상세한 문법적 설명과 예문을 적시하며, 문법적 쟁점을 논쟁적으로 정리했다. 한편 Menge²⁸⁾는 작문 연습 목적의 문장론 중심 문법서로 문법 설명, 연습문제와 해답으로 구성된다.

5. *Fabula docet*의 체제

우리의 고전문법 교육은 기원전 1세기의 고전 라틴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키케로와 카이사르가 사용한 문체를 배우는 것이 일차 목표다. 산문을 거쳐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등의 운문을 읽는 것이 다음 단계의 목표다. 물론 리비우스, 세네카, 타키투스 등의 산문과 루크레티우스의 운문도 포함될 수 있다. 앞서 고전작가의 비중을 높이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언급하였던바, 이 취지에 맞게 *Fabula docet*는 고전

27) Raphael Kühner und Carl Stegmann (1976), *Ausführliche Grammatik der Lateinischen Sprache*, Hannover, 1879년 초판, 1976년 A. Thierfelder 수정판. B. L. Gildersleeve and G. Lodge (1894), *Latin Grammar*, London. E. C. Woodcock (1959), *A New Latin Syntax*, Bolchazy-Carducci Publishers, Wauconda. H. Rubenbauer und J. B. Hofmann (1995), *Lateinische Grammatik*, Bamberg/München. H. Pinkster (2015), *The Oxford Latin Syntax, Vol. 1 The Simple Clause*. Oxford.

28) H. Menge (1953), *Repetitorium der Lateinischen Syntax und Stilistik*, Darmstadt, 1873년 초판, 11판(A. Thierfelder 수정본).

작가들의 글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Oxford Latin Course I-III*에서 접한 문장들은 고전작가들의 글과는 거리가 있다.

*Fabula docet*는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를 읽으면서 고전어 문법을 익힌다. 각 이야기 단편들의 선별은 진작 출판된 『변신이야기』(웅진 다책, 2007) 어린이용 판본에 선별된 이야기 단편들을 기초로 한다. 오비디우스의 시어(詩語)와 운문을 산문의 어휘와 문체로 수정하는 작업은 초학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다. 하지만 수정은 읽기 본문의 내용이 늘어나면서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초급 2단계를 벗어나면서 오비디우스의 문장에 가까워진다. 기원전 1세기 작가들 가운데 오비디우스만큼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도 드물다. 또한 기원전 1세기 작가들 가운데 『변신이야기』의 신화 이야기들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도 없다. 읽기 본문은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를 수정한 것이지만, *Fabula docet*의 후반부 연습문제는 카이사르의 『갈리아전기』를 기반으로 각 단원별 문법 사항을 참고하여 수정된 문장이다.

우리의 고전어 교육은 초급 3단계로 구성되고, 각 단계의 학습시간은 주당 3시간, 학기당 45시간을 전제한다. *Fabula docet*는 27과로 구성되며, 제1~8과는 1단계, 제9~17과는 2단계, 제18~27과는 3단계다. 1단계의 학습목표는 동사와 명사의 기초 어형변화 숙달이며, 2단계의 학습목표는 분사 용법, 동사변화의 확대이며, 3단계의 학습목표는 격 용법과 부문장의 활용이다. 초급 1단계의 어휘를 약 600개로, 초급 2단계까지 어휘를 약 1,200개로, 초급 전체의 어휘를 대략 2,000개로 설정한다. 오비디우스 시어(詩語)의 수정 여부는 기초 어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초 어휘는 *Langenscheidt Großes Schulwörterbuch Latein* (1971판과 2019판)을 기준으로 정한다. 기초 어휘를 벗어나는 시어(詩語)는 제일 가까운 뜻의 기초 어휘로 바꾸어준다.

*Fabula docet*의 27개 각과는 격언(*adagia*), 문법(*grammatica*), 단어(*vocabula*), 읽기 본문(*lectio*), 연습문제(*pensum*), 회화(*Latinitas viva*), 로

마 문물(*res Romana*)로 구성된다. 특히 격언은 로마의 고전문학들 가운데 소개될만한 작품들을 기원전 1세기를 중심으로 기원후 1세기까지 폭넓게 소개한다. 로마 문물은 문학 이외에 역사, 생활, 법학, 철학, 지리 등을 다룬다.

문법은 1단계에서 문장론보다는 형태론에 치중하며, 2단계부터는 문장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문법 설명은 최소화했는바, 이는 초급단계에서 문장론의 체계 전체를 소략하게나마 전반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말과의 비교를 통한 라티움어 문법 연구가 아직 부족한 때문이다.²⁹⁾ 당분간이길 바라지만, 아직 부족한 문장론 설명의 보충은 결국 좋은 고전어 교사의 오랜 경험과 능력에 기대는 것이다.

또한 문법 설명을 붙인 경우에도 우리는 최대한 규칙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순이 없다”를 제1규칙으로 삼았다. 흔히 주어 가 맨 앞에서 서고 동사가 맨 뒤에 놓인다고 하고, 곧 이어 하지만 매우 자유롭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규칙이 있으되 예외가 많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규칙은 없으나 경향성이 있다’로 설명하는 것이 초급단계에서 배울 규칙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6. 오비디우스의 신화이야기

기원전 1세기 로마문학은 로마 내전의 정치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반영한다.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보면, 건국 서사시라는 『아이네이스』도 그리하고 호라티우스는 언제나 그리하다. 내전 종식 이후 아우구스투스 시대가 주요 활동시기였던 오비디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9) 최근 들어 라티움어 문법학 논문이 등장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소수의 논문들 이외에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

오비디우스가 들려주는 고통의 사연은 전면이 부각되어 분명하고 또렷하다. 『변신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변신(變身)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인간의 몸은 변하지만 영혼은 그대로 몸에 남는다. 변신은 영혼의 고통이 가져온 결과이거나(나르키소스), 영혼의 고통을 동반하거나(다프네), 영혼의 고통을 결합한다(이오). 나르키소스는 자신과 결합하지 못함 때문에 고통을 겪다 꽃이 되었고, 다프네는 아폴로의 행동 때문에 몸이 변해 나무가 되지만 나무가 되어서도 진저리를 친다. 이오는 영혼을 가둔 몸 때문에 고통 받는다. 꽃, 나무, 황소, 샘물, 별, 거미, 돌, 사슴, 곰, 새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각자의 고통을 겪었고, 겪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 우주 전체는 언젠가 고통을 겪은 인간들이며 지금 고통을 겪는 인간들이다. 오비디우스의 세계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다.

도시를 건설하느라 바다와 땅에 내던져진 영웅 이야기에서 자연은 늘 배경이 되며, 호라티우스의 자연은 고통을 치유할 피난처였다. 신성하지도 않고 높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신성하고 높은 생각을 하는 존재는 지배를 위해 세상에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그저 다스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세상의 작고 사소한 것들에 담긴 고통의 이야기에 주목한 것은 오비디우스였다. 세상은 이렇게 신적 기원의 인간 영혼을 나누어 가지며 인간과 연결된다.

*Fabula docet*는 이런 오비디우스의 신화 이야기에서 발췌하여 교재 본문을 구성하였는바, *Fabula docet*는 신화 이야기 자체가 주는 매력과 더불어 오비디우스가 신화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한 공감의 인문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참고문헌

【자 료】

- 키케로(2014), 김남우 역, 『투스쿨룸 대화』, 아카넷.
 Cicero (1994), *De Officiis*, ed. M. Winterbottom, Oxford.
 _____ (1902), *De oratore*, ed. A. Wilkins, Oxford.
 Dionysius Thrax (1883), *Techne Grammatike*, ed. G. Uhlig, Leipzig.
 Quintilianus (2001), *Institutio Oratoria*, ed. D. Russel, Harvard University press.
 Varro (2019), *De lingua Latina*, ed. W. de Melo, Oxford.

【논 저】

- 박영배(2008), 「전상범 신성진 지음 『라틴어 입문』, 『영어영문학』 54, pp. 599-604.
 성엽(1998), 「현대 라틴어 문법 이론과 교수법」, 『서양고전학연구』 12, pp. 141-161.
 성엽(2003), 『라틴어 첫걸음』, 경세원.
 성엽(2014), 『고급 라틴어』, 경세원.
 안재원(2003), 「디오니시오스 트락스의 *Ars Grammatica*」, 『언어학』 35호, pp. 131-151.
 안재원(2008), 「개별단어오류(Barbarismus)와 문장오류(Soloecismus)에 대하여」, 『서양고전학연구』 32, pp. 177-202.
 장지연(2009), 「문학 교육으로서의 고중세 라틴어 교육」, 한국수사학회 학술대회, pp. 23-31.
 장지연(2014), 「라틴어 문법학의 품사론 발전 연구(1) — 고대 라틴어 문법학 품사체계의 확립 —」, 『지중해지역연구』 16권, pp. 47-64.
 한동일(2012), 『카르페 라틴어』, 경세원.
 허창덕(1962), 『라틴어 문장론』, 경향잡지사.
 Balme, M. and J. Morwood (1996), *Oxford Latin Course I*, Oxford.
 Devoto, G. (1968), *Geschichte der Sprache Roms*, Heidelberg.
 Gildersleeve, B. L. and G. Lodge (1894), *Latin Grammar*, London.

- Kühner, R. und C. Stegmann (1879 초판, 1976), *Ausführliche Grammatik der Lateinischen Sprache*, Hannover.
- Landgraf, G. (1903), *Historische Grammatik der Lateinischen Sprache*, Leipzig.
- Law, V. (2003), *The History of Linguistics in Europe*, Cambridge.
- Lersch, L. (1840), *Sprachphilosophie der Alten*, Bonn.
- Menge, H. (1873 초판, 1953), *Repetitorium der Lateinischen Syntax und Stilistik*, Darmstadt.
- Pinkster, H. (2015), *The Oxford Latin syntax, Vol. 1 the Simple Clause*, Oxford.
- Rubenbauer, H. und J. B. Hofmann (1995), *Lateinische Grammatik*, Bamberg/München.
- von Albrecht, M. (2003), *Cicero's Style*, Brill.
- Woodcock, E. C. (1959), *A New Latin Syntax*, Bolchazy-Carducci Publishers, Wauconda.

원고 접수일: 2020년 1월 14일

심사 완료일: 2020년 2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0년 2월 12일

ABSTRACT

A Latin Course via Ovid:

Fabula docet

Kim, Jin Sik*

This paper begins by presenting the importance and weight of Latin grammar in the classical studies, in conjunction with a brief sketch of the history of Latin grammar, which began in the 1st century BC under the influence of Greek grammar. The key point here consists of the concepts and terms that have been adopted in our newly published Latin grammar textbook *Fabula docet*. This paper then examines the Latin textbooks published in South Korea since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and the trend of Latin textbooks that have recently become popular in Europe and America. Finally, we introduce and explai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our newly published Latin grammar textbook *Fabula docet*, dealing with issues such teaching methods and extent of basic Latin grammar for students, and selection of Ovid's stories concerning Greek and Roman myth.

* Researcher, Jungam Academy for Greco-Roman Studies

